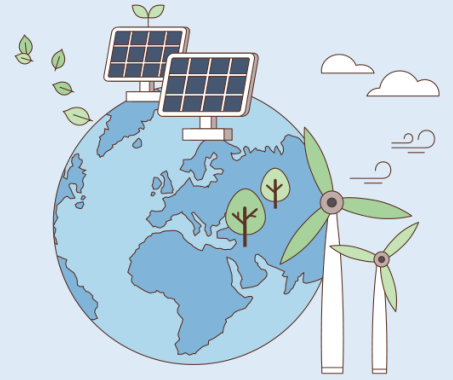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친환경이 다가 아니다...윤리경영 못하면 CEO도 날리는 'ESG 파위' *한국일보*
- 재벌 총수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계열사 239개 지배...사익편취 우려 여전 *뉴스핌*
- 한화솔루션 CEO 선임-승계정책 '등장'...보완점도 여전 *더벨*
- 포스코, 긍정부정 이슈 수치화한 '팩트북' 신설...경영진 KPI와 연계 강화 *환경비즈니스*
- 구지은이 갠 범LG家 '금녀의 벽'...아워홈에서 가능했던 까닭 *시사저널*
- 스타벅스, '브랜드 파워 1위' 순항...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증권경제신문*
- 11월 1일 통신·비통신으로 쪼개지는 SKT, 5대 1로 액면분할도 *조선비즈*
- 물적분할 나선 만도, LG화학 경험에 냉담해진 주주들 *이코노미스트*
- 삼성·현대車 등 ESG 위원 살펴보니 "교수·60대男 위주" *아시아경제*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연합뉴스*
- GS리테일·GS홈쇼핑 합병 승인...매출 10조 유통공룡에 '성큼' *이투데이*
- [4대 그룹 이사회 분석] 4대 그룹, '여성 전문가' 모시기 열중 *한국금융신문*
- 2.5일에 한 개꼴... 올 5개월간 기업 61곳 'ESG 위원회' 신설 *서울신문*
- 남양유업 인수한 PEF...남은 과제는 'ESG' *뉴스토마토*
- 롯데렌탈 IPO로 호텔롯데 상장까지...지주사 체제 대전환 예고한 롯데 *조선비즈*
- CJ 이경후·이선호 남매, '올리브영' 지렛대로 승계 작업 가속 *주간동아*
- 하이브, 4455억 유상증자 성공 *한국경제*
- 바이오社 주주 친화 행보 잇따라...주주 반응은? *이투데이*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네이버, 주 52시간 위반 정황...노조 "근무시간 적게 입력" *MTN*
- 안경덕 노동장관 "산재 반복 기업엔 사업 힘들 정도로 제재" *연합뉴스*
- 쿠팡 물류센터 노조 출범 "노동자 죽지 않는 일터 만들 것" *조선비즈*
-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 직원, 무리한 업무지시·폭언 시달렸지만 2년간 회사가 목살 *세계일보*
- 현대중공업, 끝 안 보이는 노사 갈등 *뉴스토마토*
- 시대를 앞선 17년 전 '원조 ESG'...성과공유제를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형참사...HDC현산 대표 중징계 받나 *이데일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제대로 된 배상 계획 밝혀라" *세계일보*
- 최악 피한 쌍용차...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 *한국경제*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코로나 시대에 더 주목되는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리얼타임즈*
- 한은에도 부는 'ESG 바람'...기후변화 정책확 산업구조 영향 '집중점검' *조선비즈*
- '자본시장 뉴노멀' ESG...'착통상품'부터 걸러야 *비즈니스워치*
- 해외 기관투자자 연합, 靑 전력회사 공동 주주권행사로 압박 *머니투데이*
- 카드사 ESG채권 발행 실 틈 없다...벌써 작년 수준 *연합인포맥스*
- ESG 투자법,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되자 '환경'에 무게추 *메트로신문*
- 거레소, 스몰캡 리서치센터-ESG 포털 연내 오픈한다 *머니투데이*
- [빨라지는 ESG 정보공개] 재무적 관점에서 표준제시 중요 ... 산업섹터별로 평가 필요 *내일신문*
- 국민연금 ESG투자 확대 속도붙여, 김용진 증권사에도 압박수위 높아 *비즈니스포스트*

ESG FOCUS UPDATES

부동산 투자시장의 ESG 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06.07

E

- 최근 상대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부동산 투자시장에서도 REITs를 중심으로 ESG기준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운영비용의 상승, 새로운 기술적 요구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부동산 부문의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2020년 기준 약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파리 기후협약 준수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
- 투자자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한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배제하거나 처분하고 있음.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IB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 효율, 스튜어드십 이행 여부 등 ESG 관련 사항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중임
-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미국리츠협회(NAREIT) 소속 상위 100개 REITs 중 98개 REITs가 ESG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REITs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ESG가 빠르게 확산 중임. 최근에는 50억 달러 미만의 소형 REITs의 ESG 보고서 발행 비율이 급증하는 등(2017: 41%, 2020: 97%) REITs의 ESG 보고 발행이 일반화되고 있음
- 수익성 또한 ESG 중시 REITs가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442개 REITs의 '11~'14년 성과 분석 결과 GRESB 점수가 1% 증가할 때마다 ROE는 3.4% 증가함. 대체적으로 친환경 건물의 임대료가 더 높고 노후화 속도는 더 느렸으며 세입자는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사모시장으로 형성되어 ESG 공시에 대한 압력이 REITs 등 공개시장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다만 ESG 투자가 활성화되며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연기금과 유사하게 ESG를 부동산 투자에 도입할 경우 국내 부동산 ESG 투자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녹색금융 현황 및 전망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6.04

S

-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이 EU와 미국에 의해 이끌어져온 가운데 중국의 녹색금융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 노력 하에 녹색채권 발행규모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금융 수요의 양적 팽창이 불가피하며 최근 중국 녹색금융 시장의 양적성장으로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줄고 있으나 초과수요 상태는 지속 중임
- 중국 정부의 녹색대출 정책은 오염산업에 대한 '대출억제'에서 친환경 부문에 대한 '대출확대'로 그 정책의 중심을 옮겨 갔다고 평가할 수 있음. 최근에는 단순히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녹색대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녹색대출 표준화와 녹색개념 내재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2020년에는 은행평가 시 녹색대출 평가 비중을 6%로 두도록 하여 녹색대출이 은행의 필수 지원분야가 되도록 제도화함
- 중국내 녹색금융의 주류는 녹색대출 시장이지만 녹색채권의 신규 발행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며('19년 기준 전년대비 39% 증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녹색채권 발행국으로 도약함
- 중국 정부는 2019년 녹색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녹색산업을 분류하고 표준화하는 녹색 분류체계 정립 작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현재 대출과 채권에 집중되어 있는 녹색금융 수단을 녹색 산업 표준화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보험, 펀드 등으로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어 향후 중국 내 녹색금융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뉴질랜드, 금융기관의 기후위험 관련 공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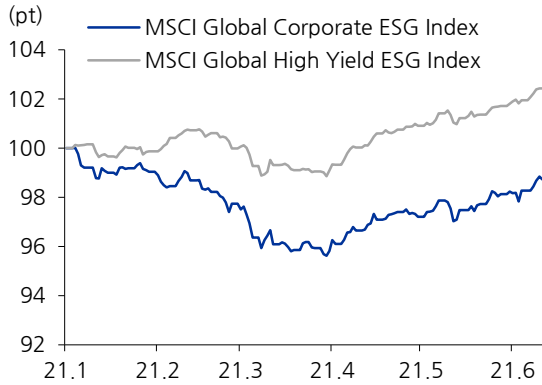
- 보험연구원 21.06.07

G

- 2021년 4월 뉴질랜드 정부는 세계 최초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기후위험 관련 공시 의무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함. 이는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리스크관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함
- 기후위험 관련 공시 대상자는 뉴질랜드의 대형 보험회사를 비롯한 대형은행, 대형 예금취급기관,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증권 발행기관 및 대형 외국계 기업 등으로 공공책임 수준이 높은 기관임
- 공시 대상자는 1) 연차보고서에 해당 기업이 기후위험 관련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기후위험 관련 한 내용과 계획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2) 공시 대상자는 해당보고서에서 언급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안에 관한 이행의 의미로 보증확약서를 취득해야 함. 3) 기후위험 관련 공시 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짐
- 법안 통과 시 공시 대상 금융기관은 2022년부터 기후위험 관련 활동을 기록하고 2023년 첫 공시를 시작할 예정임. 유럽연합,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이 은행권에 기후위험 관련 대응책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의무화에 나선 건 뉴질랜드가 최초임
- 우리나라도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탈탄소 및 그린뉴딜 정책을 논의 중이며, 금융 당국과 기관 등 해외 제도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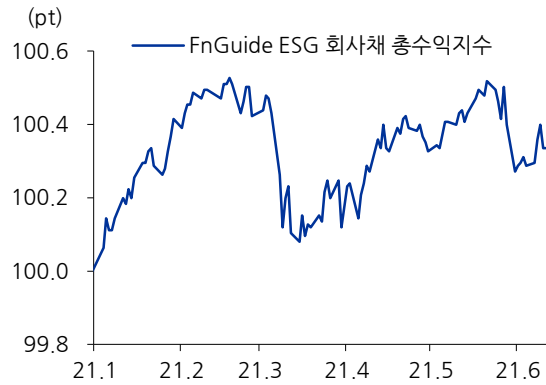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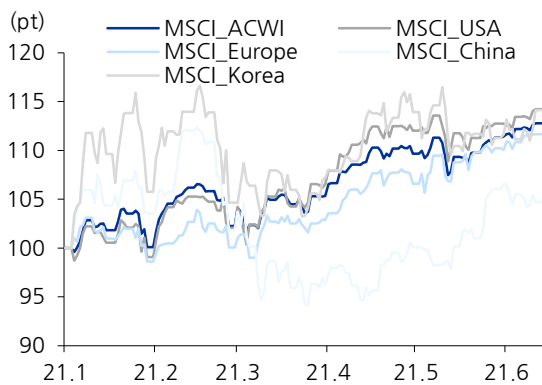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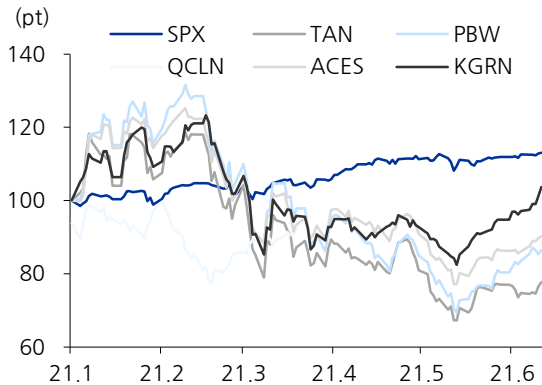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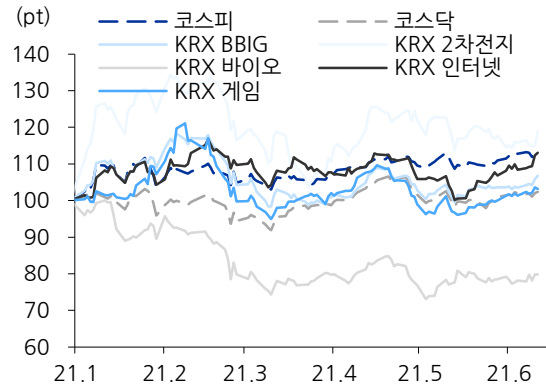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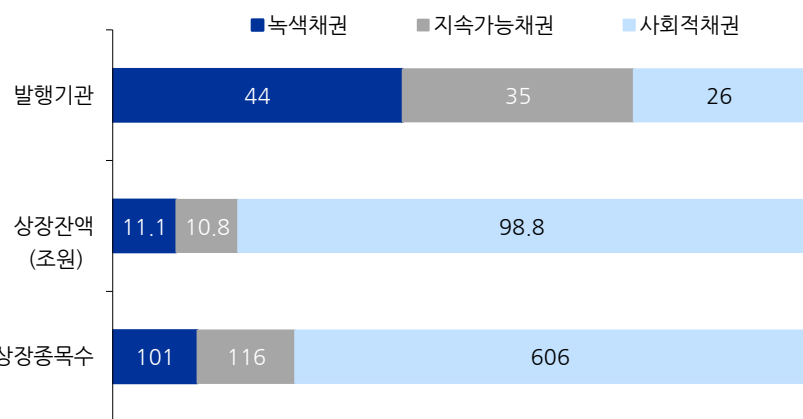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 채권종류 | 종목명 | 상장일 | 표면이자율 | 상장잔액 (백만) |
|--------|--------------------------|------------|---------|-----------|
| 녹색채권 | 롯데물산 12-1(녹) | 2021/06/11 | 1.89500 | 300,000 |
| 녹색채권 | 롯데물산 12-2(녹) | 2021/06/11 | 2.35500 | 100,000 |
| 녹색채권 | 한국동서발전 38-1(녹) | 2021/06/11 | 1.38700 | 100,000 |
| 녹색채권 | 한국동서발전 38-2(녹) | 2021/06/11 | 1.89300 | 130,000 |
| 녹색채권 | 한국동서발전 38-3(녹) | 2021/06/11 | 2.19300 | 30,000 |
| 사회적채권 | 케이비국민카드 328-1(사) | 2021/06/11 | 1.57100 | 80,000 |
| 사회적채권 | 케이비국민카드 328-2(사) | 2021/06/11 | 1.90900 | 50,000 |
| 사회적채권 | 여수광양항만공사 2021-01(사) | 2021/06/11 | 1.85100 | 50,000 |
| 사회적채권 | 중소기업은행(신)2105 이 2A-20(사) | 2021/06/10 | 1.02000 | 500,000 |
| 지속가능채권 | KT195-1(지) | 2021/06/10 | 1.38700 | 180,000 |
| 지속가능채권 | KT195-2(지) | 2021/06/10 | 1.80600 | 80,000 |
| 사회적채권 | 우리카드 197-1(사) | 2021/06/09 | 1.46100 | 10,000 |
| 사회적채권 | 우리카드 197-2(사) | 2021/06/09 | 1.60200 | 90,000 |
| 사회적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0(사) | 2021/06/08 | 1.37000 | 130,000 |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성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0%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93%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7%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 0% |

(2021.03.31 기준)